



지우의 두근두근 시험 날

Gyuri Park





지우는 책상 가득 문제집을 펼쳐두고 주먹을 불끈 쥐며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방 안의 귀여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란 지우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등교 시간이 아슬아슬해진 지우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당황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가방을 메고 열심히 달린 지우는 마침내 정든 학교 교문을 단숨에 통과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교정에 핀 예쁜 꽃들이 지우의 등교길을 응원하듯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교실에 앉은 지우는 시험 시작 직전까지 오답 노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립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각자 책을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시험지를 나누어 주자 지우는 깊은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얀 시험지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교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연필을 쥔 지우가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서 한 문제씩 답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짹짹거리는 시계 소리 속에서 지우의 연필 끝은 멈춤 없이 바쁘게 종이 위를 움직입니다.



잠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지우가 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콕콕 찌르며 귀엽게 고민에 잠깁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생각을 거듭하던 지우의 눈이 반짝이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마침내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지우는 양손을 하늘 높이 뻗으며 시원하게 기지개를 켭니다. 얼굴 가득 번지는 안도감과 미소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절친한 친구들이 지우의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어 서로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매점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시험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싱그럽습니다.



하교하는 길, 지우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노을 빛이 아름답게 물든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스스로 따뜻한 칭찬을 건네며 지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